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세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7번째 이야기]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자 되어
 주의 나라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자 되어 말기신 소명 이루리.
 (CCM ‘나는 주님께 속한자’ .. 중)

찬양가사를 고백으로 추운 겨울 우리의 사역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남산초등학교 앞 거점전도 이야기]

10월25일 초등학교 앞 거점전도 시작

신호등 앞에서 어린이 찬양을 틀어놓고 뽑기와 복음 메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날엔 경계하는 주변상가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쭈뼛 거렸지만 이제 상가분들도 이해하시고 학교 아이들도 매주 금요일 2시만 되면 성문교회 전도팀을 기다립니다. 근처에 학원 아이들도 쉬는 시간에 달려나옵니다.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물어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것을 매주 갈때마다 한가지씩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만남이 지속되니까 '저 교회 다녀요~' '저는 안 다녀서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해요~' '제 이름은 000이구요 제전화번호는~ ~ ~ 이예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어 공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만난 익숙한 얼굴이라서 그런지 경계를 풀고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람이 엄마다~ 하율이 엄마다~ 하면서 다가와 복음을 듣는 아이들도 있었답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이 교회안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원하지만,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까지 오는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허락을 구해도 안 좋은 소리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기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남산중학교 와플 전도, 농협하나로마트 거점전도 이야기]



11월 7일 중학교 와플 전도시작

목요일은 3시30분부터, 금요일은 4시30분부터 하교시간 맞춰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교회가 중학교 후문 가까이에 있는 장점으로 로비에서 와플을 굽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은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라는 말과 함께 와플을 전했고, 그 이후엔 차츰 예수님 소개하며 와플을 전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와플은 최고의 간식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이름 석자 마음에 새겨지길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와플을 굽는날은 교회 주변 상가와 건강보험 공단에도 달콤함을 배달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마트 거점전도 시작

준비한 식혜, 군고구마, 전도지를 들고 무작정 남편과 마트 앞으로 갔습니다. 책상을 펴기전 식혜와 군고구마 전도지 한장을 들고 마트 사무실에 갔는데, 팀장님께서 몇가지 물어보시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바쁘게 마트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식혜한잔과 복음 메세지 종이를 전하고, 발걸음을 멈추신 분들은 고구마 껍질을 벗겨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달전부터는 다른 출입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직원들도 몇명씩 나와서 식혜한잔과 고구마를 들고 들어가십니다.

거점전도를 매주 이어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남편과 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거점전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마음이 요동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노숙인 할아버지 전도 이야기]

동천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걸어가는데, 다리밑 언덕에 많은 짐들이 쌓여있기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 오래된 짐들속에서 누군가 거쳐하는것 같았습니다. 누군지 뵈지는 못했고 매번 먹을것만 놓고 왔습니다. 어느 추운날 저녁쯤 수정과를 끓여서 김밥이랑 가지고 갔는데 덤수룩한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와 마주할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다 듣고 대답도 잘 하셨습니다.

강물바람으로 거세게 추운 어느날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두꺼운 이불을 찾고 있는데 둘째아들이 아껴서 덮고 있는 이불을 할아버지 갖다주고 싶다고 내놓았습니다. 아들 이불이랑 이것 저것 양식을 챙겨찾아가서 자리 봐드리고 손편지로 복음을적어서 놓고왔습니다. 그 몇주 뒤 길에서 오랜만에 어느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이고 오랜만이네 안그래도 연락 한번 할라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우리집 이불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자네가 생각났네, 내일 차로 가지러 와~ "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가지고 와서 보따리를 펴 봤는데, 우리가족 나눠서 덮고도 남은 이불이였습니다. 털 제일 많이 달린 이불은 할아버지 더 펴드리고 나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크게 채우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주일에 꼭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따듯한 밥 드시고 가라고 했는데 "나 힘들어~ 힘들어~" 하시더니 걸어다니시며 저희 교회를 몇번이고 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용기 내셔서 예배나오실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추수감사절초청예배, 성탄절예배 이야기]



추수감사주일(이웃초청)예배

고등학교 입학후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믿지않은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 부모님과 이모님, 관계전도했던 아이엄마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마음을 들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탄절 감사예배

- 해년마다 성탄절이되면 귀한손길 통해 과자선물 박스가 도착합니다.
- 올해도 과자꾸러미를 만들어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전도대상자 아이들 가정에 선물했습니다.
- 교회학교 아이들 찬양합주와, 청.장년들 찬양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 실로폰 연주를 맡은 규민이는 처음에는 어려워서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집에까지 실로폰 가져가서 연습하고, 부모님 차로 이동할때도 뒷자리에서 연습한 결과 멋진소리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 예배가 끝난후 성도님들과 떡만두국을 먹으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 어느 집사님 가정의 섬김으로 성탄절 꽃꽂이 장식을 했습니다. 어느해 보다 더 예쁘게 꾸며진 성탄절 감사예배 였습니다.^^

하나님 께서 전도의 길에 동역자를 두명 이나 붙여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바쁜시간 쪼개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거점전도와 노방전도를 함께 하고있습니다. 전도나가기전 한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만날 영혼들과 전도대상자위해 기도하고 출전합니다.

두분의 동역함이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 합니다.

- 어느날 전도하고 교회 들어왔는데, 1층 로비에 세개의 택배박스가 놓여있었습니다. 흥부 박을 타듯 한박스씩 열을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 내가 갖고 싶다고 마음만 먹었던 물건들, 입고 싶었던 옷들,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나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들은 교우들과, 지인들과 나눔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 몇주 뒤 전도하고 교회에 들어오니 또 한개의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엔 내가 사지 못하고 주춤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고 집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종합선물 세트를 받았습니. 박스를 붙잡고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너무도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 핸드폰으로 반주어플을 다운받아서 예배시간에 찬양을 했었는데 어느 집사님 손길을 통해 반주기를 구입했습니다. 덕분에 예배순서가 매끄러워졌습니다.
- 시시때때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부부가 주님께서 주신 오천동 동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1. 교회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차량운전자, 반주자)
주일 아침에 1시간 이상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11시 예배 시간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차량운전 때문에 새신자 교육, 성경공부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교회가 자립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현재 25~30명 출석 중입니다.
3. 학교(초,중) 앞 전도와 마트(하나로) 앞에서 거점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4. 올해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남학생 4명) 공부하느라 나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청년대학부 소속이 되었습니다. 성문교회에 다시 출석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5. 이번에 졸업한 고3 학생들 포함해서 청년대학부 학생이 15명 정도 됩니다. 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바랍니다.
6.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 바랍니다.
(교회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서, 은행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작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1금융권으로 은행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7. 셋째 하경이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전도물품 후원]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트 앞에서 거점전도) / 목, 금요일(학교 앞 거점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관계전도와 길거리 및 상가전도를 하고 있습니다.